

[1주차 강의] 언어, 언어학, 통사론

<학습 목표>

1. 언어를 구성하는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며,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2. 언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언어학의 하위분야가 어떻게 나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통사론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언어의 구성
 - 1.1 기호의 형식과 내용
 - 1.2 기호의 하나로서의 언어
 - 1.3 언어의 형식과 내용
2. 언어의 본질
 - 2.1 언어의 기호성(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 2.2 언어의 창조성(언어의 규칙과 언어 표현의 무한성)
 - 2.3 언어의 추상성(인간의 사고 표현에서 언어가 가지는 강점)
3. 언어학의 하위분야 구분
 - 3.1 언어의 구성: 언어의 형식과 내용
 - 3.2 언어의 형식과 언어학의 하위분야
 - 3.3 언어의 내용과 언어학의 하위분야
 - 3.4.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고려한 언어학의 하위 분야

1. 언어의 구성

- 언어는 기호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 $\subset$ 기호

- 따라서 기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어의 구성을 이해해 본다.

1.1 기호의 형식과 내용,

- 기호란, 일정한 형식에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기호'에 속하는 예들을 살펴보자.

“신호등의 불빛”

기호1: 형식(파란색 불빛), 내용(가시오)

기호2: 형식(빨간색 불빛), 내용(멈추시오)

∴ 신호등: 기호들이 모여 있는 작은 체계

☞ 사람이 만든 기호(인위적인 기호)

<질문> 피어오르는 ‘연기’도 하나의 기호일까?

‘연기’의 형식은?: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거무스름한 기체 (시각, 후각)

‘연기’의 내용은?: 어딘가 불이 나 있음

∴ 연기: 일정한 형식에 일정한 의미가 배어 있으니 하나의 기호에 속함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기호(자연적인 기호)

1.2 기호의 하나로서의 언어

■ 따라서 기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인위적인 기호: 사람이 만든 기호
- ② 자연적인 기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기호

■ 그렇다면 '언어'는 두 가지 기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언어는 인위적인 기호에 속할까? 아니면,
언어는 자연적인 기호에 속할까?

■ 언어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위적인 기호'에 속한다.

언어
언어학
<유전자>
"생물학" 진화 (자연선택)

1.3 언어의 형식과 내용

■ 언어는 기호이다. 그렇다면 언어에도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① 언어의 형식: 음성

→ 인간의 말소리

② 언어의 내용: 의미

→ 음성에 실려 전달되는 정보

예) 우산: 형식: [u : san]이라는 음성,

내용: '☔처럼 생겨, 비를 막기 위해 머리 위해 펴는 것'이라는 의미.

IPA (국제 음성 기호)

2 언어의 본질

■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자.

2.1 언어의 기호성

■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역사성

■ 1장에서 논의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호는 일정한 형식에 일정한 내용을 갖는다.

② 언어는 인위적인 기호에 속한다.

③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며, 내용은 '의미'이다.

형식 + 내용
"신호등" / 의미
(인위적) (자연적)

■ 언어가 인위적인 기호에 속한다는 말은, 결국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의 결합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의 자의성]: 언어를 구성하는 음성과 의미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 인위적인 기호에 속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 보자.

인위적인 기호: 신호등, 언어

① 신호등

파란색 불빛이 반드시 '가시오'를 의미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 없다.

빨간색 불빛이 반드시 '멈추시오'를 의미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 없다.

②언어

‘우산’이라는 음성이 꼭 ‘伞’을 가리켜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 없다.

■ 그러나 자연적인 기호는 형식과 내용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예컨대, ‘연기’가 가지고 있는 형식인 ‘공기 중에 퍼진 거무스름한 기체’와 그것의 내용인 ‘어딘가에 불이 나 있음’은 서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언어마다 동일한 의미를 가리키는 음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어: [개]

영어: dog [도그]

프랑스어: chien [시앵]

독일어: Hund [훈트]

음성 + 의미

■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음성과 의미의 결합이 비록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단 ‘음성-의미’의 짝들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합을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비가 와서 나는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다.’

위 문장에 사용된 ‘비’와 ‘우산’, ‘학교’를, 뜻은 그대로 두고, 음성만 바꾸어 보자.

([비] → [친구], [우산] → [구두], [학교] → [하늘])

“친구가 와서 나는 구두를 들고 하늘에 갔다.”

과연 이와 같은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할까?

음성 + 의미

언어
C 기호

■ 따라서 언어의 형식(음성)과 내용(의미)의 결합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부른다.

[언어의 사회성]: 음성과 의미의 결합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 사회성
사위성
음성 + 의미
“언어”

■ 한편, 우리는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의미의 변화: 사장(회사의 책임자) → ‘막연한 경칭’

음성의 변화: 가히 → 개, 거북 → 거북

의미와 음성의 변화: 어엿브다(불쌍하다) → “예쁘다”

표제용
이수호대장님

■ 음성과 의미 간의 결합이 비록 사회적 약속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둘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자의적이므로 영원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합을 지탱하는 약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성]: 음성과 의미 간의 결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

이상의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특성들이었다. 이제 언어를 더욱 언어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특징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2.2 언어의 창조성

■ 언어의 규칙과 언어 표현의 무한성

■ 언어 내부에는 규칙이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만약 언어에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은 일종의 약속이며 이러한 약속의 체계를 제대로 따를 때 우리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규칙성]: 언어는 일종의 규칙 체계이다.

■ 언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존재한다.

음절을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 음운 규칙

단어를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 형태 규칙

문장을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 통사 규칙

의미를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 의미 규칙

발화를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 화용 규칙

■ 이 가운데 “문장을 분석하거나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인 ‘통사 규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

$S \rightarrow NP + VP$

$VP \rightarrow S + V$

(S: 문장, NP: 명사구, VP: 동사구, V: 동사)

[동수가 잔다]_S.

<철수는 [동수가 잔다]_S고 생각한다.>

<영배는 [철수가 [동수가 잔다]_S고 생각한다]_S고 믿었다.>

<지혜는 [영배가 [철수가 [동수가 잔다]_S고 생각한다]_S고 믿었다]_S고 말했다.>

■ 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 문장은 무한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규칙을 ‘회귀적 규칙’이라 하고, 이로 인해 언어의 창조성이 발생한다.

[언어의 창조성]: 언어는 회귀적인 규칙으로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러한 언어의 창조성으로 인해 우리들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3 언어의 추상성

■ 인간의 사고 표현에서 언어가 가지는 강점

■ 언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인간의 모든 표현 욕구를 다 잘 충족하여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말로써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해 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언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질문] 언어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의 도구인가?

■ 그 대답은 무엇일까? '예'일까, '아니오'일까?

답은 '아니오'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묘사할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가 사고 표현의 도구로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아이 옆에 사자가 있지 않다. (부르조)
나는 어제 배가 많이 아팠다.
철수는 끈기가 부족하다.
<나는 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한다.>



■ 위와 같은 문장들은 매우 추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로서 언어가 아니라면 지극히 표현하기 힘든 경우들이다. 이렇듯 언어는 매우 추상적인 어떤 사고나 정서를 표현해 내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언어의 추상성]: 언어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3. 언어학의 하위분야 구분

3.1 언어의 구성: 언어의 형식과 내용

■ 2장까지에서 배운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다시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는 기호에 속한다.

② 기호는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내용을 갖는다.

③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며, 내용은 '의미'이다.

■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세 번째 사항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형식에 해당하는 '음성'과 언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3.2 언어의 형식과 언어학의 하위분야

■ 먼저 언어의 형식에 해당하는 '음성'에 대해 살펴보자.

음성(音聲): 말소리 →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 ≠ 음향

(음향(音響):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

■ 그렇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① 아, 바, 악, 박
② 시아버지, 잡혔다, 논밭, 뿔푸르다
③ 시아버지께서 막 오셨습니다. / 아 하늘이 뿔푸르구나! / 나는 학생이다.
④ 철수야, 어서 이리 와 봐. 엄마 좀 도와 줘. 얼른 좀 오라니까!

■ 위의 ①~④는 모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은 크기에 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①의 예들을 살펴보자.

①의 예들에 대한 분석

아: 모음 'ㅏ' 하나만으로 구성된 말소리

바: 자음 'ㅂ'과 모음 'ㅏ'로 구성된 말소리

악: 모음 'ㅏ'와 자음 'ㅂ'으로 구성된 말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박: 자음 'ㅂ'과 모음 'ㅏ', 자음 'ㄱ'으로 구성된 말소리

- ①에서처럼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언어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부른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위를 연구하는 분야를 '음운론'이라고 부른다.

[음운론]: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 ②의 예들은 ①의 예들보다 더 크다.

시아버지: 4음절(시, 아, 버, 지)

잡혔다: 3음절(잡, 혀, 다)

논밭: 2음절(논, 밭)

높푸르다: 4음절(높, 푸, 르, 다)

- ②의 예들은 의미 차원에서 볼 때 다시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시아버지 → 시 + 아버지

잡혔다 → 잡히었다 → 잡 + 히 + 었 + 다

논밭 → 논 + 밭

높푸르다 → 높 + 푸르 + 다

(단어) (형태소)

-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좀더 작은 언어단위들, 예컨대 '시아버지'의 '시'와 '아버지'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는 '남편의'라는 의미를 가지며 '아버지'는 '남자인 아버지'를 뜻한다. 따라서 '시'와 '아버지'를 결합한 '시아버지'는 그 둘의 뜻을 합한 '남편의 아버지 가운데 남자'를 의미하게 된다. ②의 예들을 '단어'라 부르고 그 단어들을 구성하는 더 작은 부분들을 '형태소'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형태소들이 모여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하위분야를 '형태론'이라고 부른다.

[형태론]: 형태소들이 모여 단어를 구성하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 ③의 예들은 ②의 예들보다 더 크다.

시아버지께서 막 오셨습니다

→ 시아버지 + 께서 + 막 + 오시었습니다

→ 시 + 아버지 + 께서 + 막 + 오 + 시 + 었 + 습니다

아, 하늘이 높푸르구나

→ 아 + 하늘 + 이 + 높푸르구나

→ 아 + 하늘 + 이 + 높 + 푸르 + 구나

나는 학생이다

→ 나 + 는 + 학생 + 이다

→ 나 + 는 + 학생 + 이 + 다

- 위의 분석은 ③의 예들을, 방금 앞에서 배운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인 '시아버지가 막 오셨습니다'는 먼저 단어 차원에서 분석하면 '시아버지(명사) + 께서(조사) + 막(부사) + 오시었습니다(동사)'가 된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사, 조사, 부사, 동사'와 같은 단어의 종류를 가리키는 명칭들은 이미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편, ③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형태소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시 + 아버지 + 께서 + 막 + 오 + 시 + 었 + 습니다'가 된다.

- 그런데 ③의 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

시아버지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 시아버지께서(주어) + 막(부사어) + 오셨습니다(서술어)

아, 하늘이 높푸르구나!

→ 아(독립어) + 하늘이(주어) + 높푸르구나(서술어)

나는 학생이다

→ 나는(주어) + 학생이다(서술어)

■ 아직 '주어'나 '부사어', '서술어', '독립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 적어도 '주어'나 '서술어'라는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친숙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고 부르고,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서술어', '부사어', '독립어' 등을 '문장성분'이라고 칭한다. 문장성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단어'이며, 따라서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통사론'이라고 한다.

단어 → 문장성분 → 문장

[통사론]: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 ④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한 대목을 옮겨 본 것이다. 이것은 그 전체가 하나의 언어형식으로서 ③보다 더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철수야, 어서 이리 와 봐. 엄마 좀 도와 줘. 얼른 좀 오라니까!

→ 문장 차원의 분석

철수야, 어서 이리 와 봐. + 엄마 좀 도와 줘. + 얼른 좀 오라니까!

→ 문장성분 차원의 분석

철수야(독립어) + 어서(부사어) + 이리(부사어) + 와 봐(서술어) # 엄마(목적어) + 좀(부사어) + 도와 줘(서술어) # 얼른(부사어) + 좀(부사어) + 오라니까(서술어)

■ ④는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해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형식은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매우 친숙한 것이다. 한 개 이상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위들을 '발화'라고 하며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화용론'이라 부른다.

[화용론]: 문장들이 모여 발화를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3.3 언어의 내용과 언어학의 하위분야

■ 이상, 언어의 형식에는 무엇이 있고, 그러한 언어형식들을 다루는 언어학의 하위분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다. 과연 그러한 언어형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 언어형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내용(의미)

■ 매우 거창하고 어렵게 들리는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언어형식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즉, 언어형식들은 일종의 그릇이며, 그러한 그릇에 담기는 것이 바로 언어내용 즉 '의미'인 것이다. 밥그릇에 '쌀밥'이 담겨 있다면, 말소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밥그릇 : 쌀밥 = 말소리(언어형식) : 의미(언어내용)

■ 그렇다면 언어내용에는 어떠한 단위들이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①에서 ④까지의 언어형식들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음절의 의미: ???

→ 단어의 의미: '시아버지'가 가진 의미

→ 문장의 의미: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가 전달하는 의미

→ 발화의 의미: 위 세 문장 전체가 함께 전달하는 의미

문화의 의미

[의미론]: 언어형식들의 의미를 다루는 언어학의 한 분야.

‘음절’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가?

음절 '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 음운론의 연구 대상인 자음, 모음, 음절은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종 (bell) : 공 (ball)

($\frac{1}{2} + ?$)
 $\frac{1}{2} + \frac{1}{2}$

$$\frac{2}{0} \neq \frac{2}{0}$$

■ 위의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두 단어들의 음절을 보면 오로지 첫 자음에 서만 차이가 난다. 즉, 두 단어의 첫 자음은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리키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두 단어를 '최소 변별쌍'이라고 부르며 이때 자음 'ㅈ'과 'ㄱ'은 두 단어의 의미를 분화시켜 주고 있다고 말한다. 두 개의 자음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그들로 인해 의미가 분화되는 것이다. 모음 또한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종(bell) : 중(middle)) ㄷ ㅈ

■ 음절은 자음이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 분화는 근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음, 모음'과 '의미': 자체의 의미는 없지만 의미를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미 생성

■ 따라서 음운론 역시 의미와 무관한 언어형식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의미의 분화를 책임지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형식을 다루는 영역이다.

3.4 비언어적 요소까지 고려한 언어학의 하위분야

■ 남아 있는 두 번째 문제는 '화용론'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용론은 가장 큰 언어형식인 '발화'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발화라고 하는 언어단위는 화자(말하는 이)와 청자(듣는 이)라는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즉,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해

■ 따라서 '발화'라고 하는 언어형식은 '자음, 모음, 음절, 형태소, 단어, 문장'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자음~문장'은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언어형식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하위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다.

